

영주댐 수변공간 유희지 공공자원으로써 활용방안 연구

국가생태정원 조성

A Study on how to Utilize the Yeongju Dam Waterfront Space as
an Idle Public Resource

Creation of National Ecological Garden

주 저 자 : 이승환(Lee, Seung Hwan)

동양대학교 정교수

fani@naver.com

Abstract

Dams are national resources that protect the ecosystem and contain the value of tourism resources. Yeongju Dam located in Yeongju started construction in December 2019 as part of the Four Rivers Maintenance Project and completed the main dam in December 2016. Current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in conflict over the maintenance and dismantling of the dam. The area around domestic dams is contributing to the revitalization of the local economy with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tourism resources according to the surrounding landscape. This study intends to create an eco-friendly national garden in terms of ecological conservation by collecting opinions on the preservation of the dam based on the perception survey of local residents in the villages where idle land was formed while lowering the water level of the dam. As a research method,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the ecosystem and maximize its use as a resource desired by citizens through collecting opinions through domestic waterfront space development cases, local residents' opinions on whether or not dams are maintained or not, and interviews with water quality management experts, the purified landscape wetlands A national ecological garden was proposed by constructing an ecological waterside conservation belt by dividing it into creation, non-point pollution storage facility construction, and eco-friendly planting construction.

Keyword

Dam(댐), Tourism Development(관광개발), Public Design(공공디자인) Waterfront Space(수변공간) Idle Place(유휴지)

요약

댐은 국가자원으로 생태계의 보호와 동시에 관광자원으로의 가치를 담고 있다. 영주에 위치한 영주댐은 4대강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12월 본 댐을 준공하였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댐의 유지와 해체를 두고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댐 주변은 환경개선의 목적과 주변 경관에 따른 관광자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댐 수위를 낮추면서 유휴지가 형성된 번개들 지역민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댐의 존치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생태보전측면과 친환경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의 수변공간의 개발사례와 현지주민들의 댐 존치 유무를 통한 의견 수렴과 수질관리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생태계보호를 우선시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자원으로써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화경관습지조성, 비점오염 저류시설조성, 친환경 식재조성으로 나누어 생태수변보전 벨트를 구축하여 국가생태정원을 제안하였다.

목차

1. 서론

- 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공공자원의 역할

2-2. 영주댐 대상지 현황

2-3. 물 관리기본 계획 수립체계

2-4. 국내 수변공간 조성사례 조사

3. 유휴지 활용 및 활성화 방안

3-1. 추진방향 설정

- 3-2. 영주담에 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 3-3. 비전과 목표
- 3-4. 제안 및 기대효과

4.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담의 목적은 농업용 담수효과와 수해에 대한 안전성 등 다양한 가치를 두고 있다. 4차산업화 시대에 탈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소득증가와 더불어 환경어메니티가 중요해지면서 수변공간이 다시 환경성과 도시성을 회복함을 보여주고 있다(Hoyle, 1998). 인간은 휴식이 필요하고 자연환경에서 속에서 물은 누구에게나 가장 친숙한 휴식 및 여가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강을 비롯한 수변공간에 대한 개발과 행위를 통해 하천 행정에 대한 정부와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으로써 공공성을 갖고 있는 공유지의 처방을 환경보호와 지역의 상생을 위한 거버넌스구축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보다 합리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담 주변 수변공간을 최초의 계획안에 변경됨에 따라 지역민의 관심과 여론을 수렴하여 환경보호와 잘 정비된 생태정원으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수준이 높아 지도록 개발규제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 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주 담 건설 후 정상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담 주변의 유휴지를 지역 주민과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유휴 공공자원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현대에는 과거에 비해 수변 공간 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변공간을 이용한 도시계획의 설계에서 휴식 공간, 공공 공간(public space), 도시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로써 도시 내의 하천이나 강 등을 재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지는 영주담 상류의 번계들(117만㎡) 유휴지를 수생태보전 측면과 친환경농업 기반의 사회적 경제 측면, 자연친화형 거주 구현측면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및 관광자원으로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 및

생태농업이 공존하는 장소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설문을 통하여 유휴지역 주민들의 담의 존치 여부와 우선과제 향후 계획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외 담주변을 활용한 자원에 대한 사례조사와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수질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담주변 유휴지인 번계들을 생태수변 보존벨트를 조성하여 정화경관습지조성, 비점오염저류시설, 친환경 식재조성구역으로 나누어 지역의 경제적 측면과 환경을 고려한 국가 생태정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공공자원의 역할

인간이 원시공동체 속에서 자연과 관습에 따라 살아가면서 일정한 장소에 정착하면서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서 공동체로써 살아가게 되었다.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면서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담과 운하,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갖추게 됨으로써 생산력을 높이게 되었다. 문명의 발달과 함께 도시가 생성되고 개인적인 생활의 장과 공공장소에서의 여러 장치나 장비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게 된다. 여기에 공공디자인의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¹⁾

공공디자인에는 도로, 운하, 담, 공원, 건축물로 주거환경에 필요한 환경시설이 있다. 이 환경 시설은 물리적 기능뿐만이 아닌 환경적 요인과 시각적 환경 요소로 계획되어야 한다. 산업화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최초에 계획단계 과정에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은 환경개선과 식수 및 농업용수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 여가증진을 위한 공공자원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중요하다.

1) 두산백과 두피디아 참고

2-2. 영주댐 대상지 현황

영주시청과 봉화군청으로부터 8km의 친환경 수변생태 공간, 용도지역 상 대상지 자체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이다. 영주댐 상류지역으로 환경부 부지 일원으로변계들 및 개산들 내 117만㎡이다. [그림 1]



[그림 1] 댐인근 대상지 (변계들 개산들)

이곳은 댐 수몰지역으로 환경부에서 매입하였으나 현재 댐 수위를 낮춰서 설계하면서 유휴지로 남게 되어 지역의 생태와 수질 정화를 위한 국가생태공원으로 조성계획을 하고자 한다.

2-3. 물 관리기본 계획 수립체계

영주댐 상류지역 대상지는 계획홍수위선에서 5km 이내로서, 총 저수용량 2,000만㎡ 이상인 댐의 경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km이내를 '댐 주변 지역'으로 정의한다(시행령 제2조). 발전소주변지역법의 적용을 받는 댐의 경우 댐 주변 지역은 만수위선(댐이 만수가 됐을 때와 같은 해발고도에 있는 곳)으로부터 2km이내 지역 해당 된다.²⁾ 특히, 대상지의 해발고도는 영주댐 계획홍수위 이내 포함되어 환경부에서 매입한 상태이다. 영주댐 유역면적 500㎢, 총저수용량 1억8천1백만 m³, 계획홍수위 164m이다.

[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과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기준법의 개정)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9조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40조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1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 연합뉴스, 6월부터 댐주변에 '친환경' 관광단지조성 가능해진다. 2021

제42조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재원
제43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제44조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재원

댐주변지역 친환경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의 제정)

댐 주변지역은 다양한 친수활용 가치를 내재 법적 한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2019년 6월 13일 시행령에 따라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의되었다.

2-4. 국내 수변공간 조성 사례 조사

수변지역에는 조성에는 테마공원부지, 친환경농업지구, 4無 농업지대, 수변생태벨트로 나누어 질 수 있다. [그림 2]

수변생태벨트로는 수질정화 능력이 우수한 식물 식재를 조성하고 대표적인 수생식물 25종에 대한 농촌진흥청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식재하여 수생태 관리에 더 집중된 공간을 조성한다. 4無농업지대에는 밀원식물 식재로 농가 수익을 창출 수 있도록 조성한다. 친환경 농업지구는 지역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는 농작물을 경작한다.



[그림 2] 친수생태환경조성계획도

2-4.1. 대청댐 (수변생태방벨트 조성사례)

3) 김상만, 소양강댐 주변지역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 2019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사업을 진행하였다.(2020.12.13.) 대청댐 상류 서화천 유역의 충북 옥천군 이백리와 지오리의 홍수터 2개소(전체 면적 약6만 2천㎡)에 1단계로 수질 정화를 위한 정화림과 생태습지,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등 약용나무로 조성되는 소득 작물림⁴⁾ 구간과 생태관찰 및 탐방로 등을 조성하였다. 2단계로는 대청호 오백리길과 연계한 생태탐방로 조성을 하였으며, 댐 홍수터 본연의 홍수조절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기능을 갖추고, 비홍수기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생태문화공간으로도 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부터는 금강 외에 다른 수계의 댐 홍수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관리방안 수립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⁵⁾ [그림 3]



[그림 3] 대청댐 수변생태벨트 조성

2-4.2. 부여 왕포천, 익산천 (생태하천복원사례)

부여군은 상습침수구역에 환경기술을 적용한 생태습지를 조성해 왕포천의 홍수 시 빗물완충기능을 회복시켰고 여울 및 정수식물을 활용해 수질개선과 궁남지와 연계한 관광명소화를 추진하였다.⁶⁾

익산천의 경우 2013년 사유지를 매입하여 생태축제를 진행하여 2020년 11월 우수하천으로 선정되었으며, 30년간 가축분뇨가 퇴적되어 새만금 수질오염 및 악취의 주원인으로 지목되었던 익산천 및 주교체 습지를 자연정화기능을 가진 생태하천과 생태습지로 복원하였다.⁷⁾ [그림 4]

4) n.news.naver.com(2020.12)

5) www.news1.kr(2020.12)

6) www.newspim.com(2020.11)

7) www.lafent.com(2020.11)



[그림 4] 왕포천(위), 익산천(아래) 조성

2-4.3. 안동호탐방로 (생태탐방로_친환경_무장애)

3대문화권 사업으로 안동선비순례길 탐방로 조성사업으로 안동호 상류를 고루 포함하였다. 9개 코스에 87km의 수변·수림 탐방로 조성하였다. 안동호에 설치되는 폭 2.75m, 길이 1km의 수상데크 설치, 쉼터 2곳이 조성되었다. 사업의 형태는 비료 없는 부석테, 수질개선식물, 조사료단지, 일주도로 등 관광사업, 주변 문화역사 자원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5]



[그림 5] 안동호 탐방로

2-4.4. 안동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

안동호 일대는 대부분 무허가 경작으로 수질오염 우려,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2017년 7월, 안동시, K-water, 안동상공회의소,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 업무협약⁸⁾을 체결하여, 참여 주체별 역할을 분담 후 지역 주민들은 전체 28만평(약 93만㎡) 중 1단계 지역인 9만여평(약 30만㎡)에 식재, 해당 공간을 이용한 축제를 진행하였다.[그림 6]



[그림 6] 청보리밭 조성

8) newsis.com(2018.05)

2-4.5. 포천시 한탄강 (홍수터 조사료 및 경관작물 재배단지)

한탄강 댐 건설로 인해 발생된 유휴지(관인면, 영북면, 창수면) 약 200ha에 홍수터로 지정되어 농업경작이 금지된 경지를 정리하고 경관작물 및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경관작물인 해바라기, 아마란스, 메밀꽃 등을 파종하였다.⁹⁾ 주체는 관내 조사료 경영체, 해당 마을 주민으로 구성, 4계절 축제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7]



[그림 7] 조사료 생산 및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

2-4.6. 소양강 (유휴지 친환경 조사료 단지 조성)

인제축협 주체로 참여, 2018년 기준 소양강 유휴지 330ha 생산면적에서 연맥 3천500톤을 생산한다. 조사료 작목반 5개소, 50여명의 회원농가가 작업에 참여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인근 소양강 유휴지 이용허가를 받았다. 인제축협은 인제군과 협력해 조사료 재배 농가들의 위한 컨설팅에 종자, 제조비, 장비 등을 지원하여, 최근 7년간 유휴지 재배면적이 250ha에서 330ha로 확대됐으며, 유휴지 생산량은 '13년 1천690톤에서 현재 3천500톤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8]



[그림 8] 유휴지 친환경 조사료 단지 조성

3. 유휴지 활용 및 활성화 방안

3-1. 추진 방향 설정

① 단위사업 구상 : 비료 없는 부석태, 수질개선식물, 조사료단지, 일주도로 등 관광사업, 주변 문화 역사

자원 연계 관광활성화

② 부지 소유권 : 환경부 부지 = 그대로 두는 것 = 해당 부지 사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 예상
→ 개발적 측면보다 환경(수질)개선, 지속가능성에 대한 접근 필요

③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언급

- 공간 연계 : 폐교(약 5,000평)과 이산서원, 천운정 (삼판서 김판서 고택)

④ 계획의 상위 프레임 : 공간(생태환경)과 사람(지역주민)의 지속가능한 관계 모델 → 계획 프로세스부터 차별화 = 명분쌓기

⑤ 공간정의 : 거대한 필터, 지속가능한 공간 = 적극적 관리가 필요 → 일본의 사슴과 한국의 고라니와 멧돼지 : 피해예측모델(유랑관리, 수변생태 등), 복원모델 = 방치가 보호는 아니다

- 댐(K-water)에 도움되는 사업
- 수자원, 수변자원, 생태, 복원, 정화, 지속가능성, 대면적 공원
- 복합수자원시설, 댐의 기능(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순기능과 역기능)
- 순기능은 발전, 역기능은 보완
- 모든 이해관계자를 두고 각각에 미칠 영향을 분석, 도식화

⑥ 법정 사업 분류, 내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투입비용 사업 및 재원조달계획 명시화

국가의 유휴지를 방치하는 문제는 자원 낭비와 지역의 경제에도 도움이 안된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가 방치된 환경자원을 순차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문화와 생태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친환경 국가정원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표 3] 연령대 분포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빈도	109	90	121	116	76	512
구성비 (%)	21.3	17.6	23.6	22.7	14.8	100

9) media.daum.net(2015.8)

3-2. 영주댐에 관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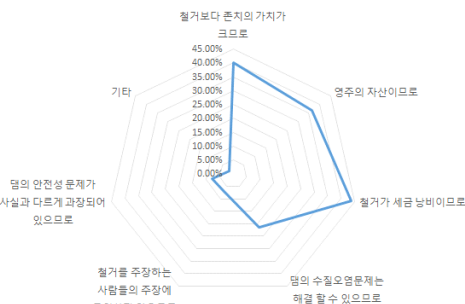
영주댐에 대한 영주시민 대상으로 2021년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518명의 대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의 84.7%가 영주댐의 존치를 영주댐이 존치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철거가 세금 낭비이므로'가 43.8%, '철거보다 존치의 가치가 크므로'가 40.1%, '댐의 수질 오염문제는 해결 할 수 있으므로'가 21.4%, '댐의 안전성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으므로'가 7.6%로 조사되었다. [표 4],[그림10]

[표 4] 영주댐 존치 이유

문 항	빈도	구성비
철거보다 존치의 가치가 크므로	206	40.1%
영주의 자산이므로	188	36.6%
철거가 세금 낭비이므로	225	43.8%
댐의 수질오염문제는 해결 할 수 있으므로	110	21.4%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37	7.2%
댐의 안전성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어 있으므로	39	7.6%
기타	9	1.8%

영주댐이 존치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영주댐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할 업무 중 가장 시급한 사항'이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수질 개선 작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6%, '댐 안전성 보강'이 24.9%로 나타난다.



[그림 10] 영주댐 존치 가치 척도

[표 5] 영주댐 존치 시 우선 과제

문 항	빈도	구성비
댐 안전성 보강	127	24.9%
수질 개선 작업	243	47.6%
시민 홍보	55	10.8%
댐 철거를 주장하는 단체 설득	42	8.2%
담수	44	8.6%
합계	511	100.0%

영주댐이 존치해야 된다고 응답한 사람들 대상으로 '영주댐의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영주댐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물었을 때, '현재 상태를 지속한다' 즉 존치해야한다는 응답이 60.0%, '철거를 검토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40.0%로 나타났다.

영주댐에 대한 주민의견을 종합한 결과

첫째, 영주시민들은 공통적으로 댐의 수질 개선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댐철거 요구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영주댐 유역의 수질악화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며, 특히 근본적인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이러한 의견을 토대로 영주댐은 존치해야 된다는 가정하에 수질개선을 토대로 정부와 지방정부의 수질개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의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주민들과의 거버넌스구축과 지방정부의 관심이 중요할 것이다.

3-3. 비전과 목표

영주댐은 환경보전과 농수로써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낙동강 수계의 근간이며, 세계적인 모래하천지역을 품고 있다. 내성천 일대 수변식생지수 평가결과 '매우우수'로 평가되었으며, 지속가능한 생태정원으로써의 가치가 인정된다. 따라서 수생태 보전 친수환경생태공원조성과 친환경농업 기반의 사회적 경제사업 등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및 수생태단지로 조성 가능하다. [그림 11]



[그림 11] 비전 및 목표

담은 담수의 기능과 동시에 주변 환경 정화기능을 갖춰야 한다. 영주담은 환경부에서 공식운영하가 나 지 않아 아직까지도 정식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담의 존치와 철거와 관계없이 국가에서 매입한 대단위 유흥지를 생명력의 보존체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를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 농업 기반의 자연친화형 공공공간을 조성하여 지역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3-4. 제안 및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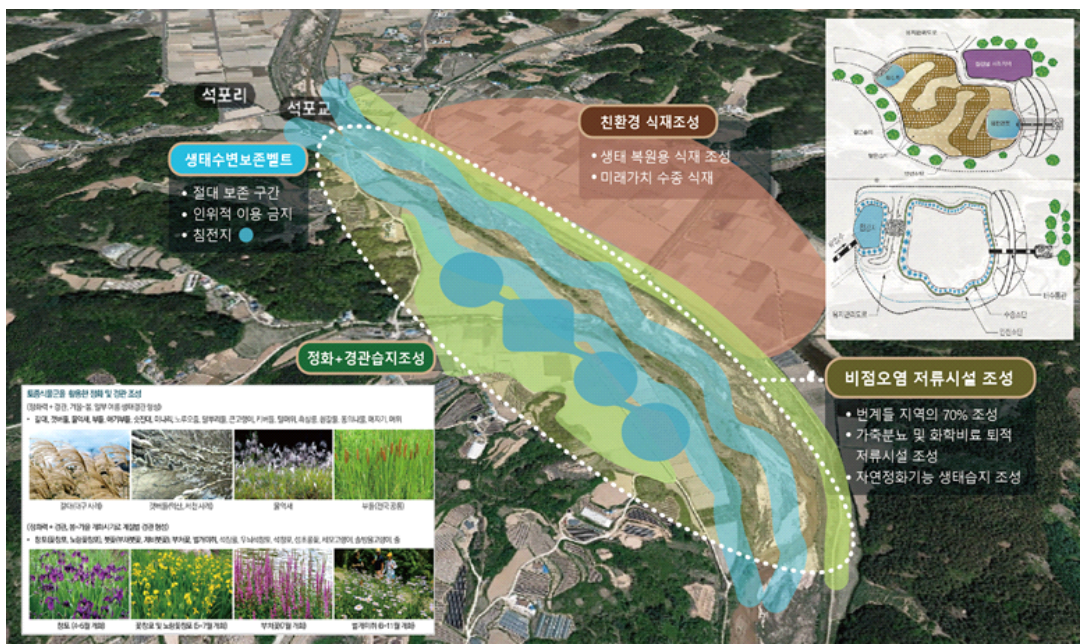
영주담은 지난 몇 년간 정부와 지자체와의 갈등 속에서 건설이후 현재까지 정식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제안이 필요하다.

첫째, 집행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담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대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영주담에 대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월담, 한탄강담 사례 등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 건설 예정지를 지정·고시하였으며, 실시설계의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들을 무시한 채 진행되어 절차를 무시한 진행은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단체들로 하여금 집행기관의 의도에 의심을 가지게 함으로서 집행기관의 신뢰성을 저하시킨 사례가 있다.

둘째, 지역공동체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의 제도화마련이 필요하다. 영주담과 관련하여 정책추진기관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책의 제시는 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유인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영주담의 존치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면, 무조건의 반대는 지양되고 정책집행기관과의 대화모색에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셋째, 대화합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의 형성이



[그림 11] 유흥지(번게들) 친환경 생태 조성 조감도

필요하다. 조정위원회 등 의결 기구에서 최종 결정이 났을 때 그 결정을 사회적 약속으로 지켜내는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성숙한 민주적 시민의식과 행동양식은 부분적으로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즉 공동체적 주인의식과 참여의식으로 무조건적인 집단적 저항보다는 대화를 통한 협상과 타협의 원칙 하에서 그것이 합리적, 민주적 그리고 합법적으로 결정되었으면 수용하는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¹⁰⁾

따라서 댐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한 정화경관습지조성과 친환경 식재조성, 비점오염 저류시설을 조성하여 생태정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¹¹⁾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SNS상에서 힐링과 일상여행에 대한 언급 비중이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다.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는 언택트 여행지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에서의 에코힐링공간으로의 가치와 국민여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결론

영주댐은 지난 수년간 지역민과의 갈등 속에서 건설된 댐으로써 완공 후 환경부에서 준치와 철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천억을 들여 건설한 댐을 녹조현상으로 환경 파괴의 원인으로 몰아 철거하자는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의 목적을 가진 댐주변의 유휴지를 가치 있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최근 국가에서는 공공 영역에 대한 질적 가치가 요구됨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사회 전반에 확대되고 적용되고 있다. 국민의 생활수준과 문화의 발전에 따라 사회 복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자체의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과 공공디자인 관련에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자원인

댐 주변 공간을 지역의 시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댐 준치에 따라 파생되는 산업구조가 댐 해체 후보다 훨씬 고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주댐 건설에 따라 주변지역은 기존 농업기반의 산업에서 벗어나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주댐이 위치한 평은면과 상류지역인 이산면은 영주시에서도 오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산업기반의 농업 의존도가 매우 높고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영주댐 건설로 인한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은 농업에 비해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댐 주변 발전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욱이 전국 농어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즉 6차 산업의 기반마련이 영주댐 건설로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3차 서비스·관광 산업이 2차 산업(농산물 가공), 1차 산업(생산)을 선도 하는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농촌은 식량안보와 치유농업 등 국가적차원에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지역 소멸에 따른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지방의 유휴공공자원을 활용하는 데 안은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공공디자인관점에서 다소 광의적인 댐주변의 주변 공간이지만 향후 공공디자인분야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으며 지역민의 거버넌스 구축과 세부적인 계획 수립 등이 뒷받침 되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향후 환경부의 댐 준치여부를 떠나 소멸되고 있는 농촌지역이 공공유휴지를 국가정원으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및 사회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경기개발연구원,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 2007
2. 국토일보, 예당호수 수변개발로 농외소득 높인다, 국토일보 2010.9.14
3. 김사현, 팔덕지 수변 관광휴양단지 조성, 본격 추진, 2007
4. 김상만, 소양강댐 주변지역 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0) 김승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책갈등과 조성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8. pp.65-66요약

11) 김성원, 홍연용, 이승환, 댐 유입 수질분석 및 개선 방안, 영주시청, 2022, p.107

- 최종보고서, 2019
5. 김성원 · 홍연웅 · 이승환, 댐 유입 수질분석 및 개선 방안, 영주시, 2022
 6. 김승일,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 정책갈등과 조성에 관한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2008
 7. 김혁수, 관광현상 규명을 위한 질적 연구 방법의 고찰과 적용, 관광학연구, 33(11), 2003
 8. 김혁수, 한국관광연구학회관광연구저널31(2), 수자원공사 댐 수변공간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재무타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17
 9. 댐 주변 관광지개발과 호수수질의 영향, 대한상하수도학회 · 한국물환경학회, 2008 공동 추계학술발표회 논문 요약집, 2008
 10. 연합뉴스, 6월부터 댐주변에 '친환경'관광단지소성 가능해진다. 2021
 11. 영주시, 『내성천류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 2019
 12. 영주시, 영주댐 상류지역 유흥지 활용방안 수립. 2021
 13. 이희천 · 박인규 · 전기환, 워터프론트의 관광개발 전략에 관한 연구: 낙동강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관광연구, 2011
 14. 하지영, 물의 도시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친수주거지 계획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친수공간개발에 관한 연구.홍성신문 2010.12.24
 16. 홍양저수지 주변 위락시설 건설, 홍성신문, 홍양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착수, 2011.10.13.
 17. www.madtimes.org(2021.1.14)
 18. www.news1.kr(2020.12)
 19. newspim.com(2020.11)
 20. www.lafent.com(2020.11)
 21. newsis.com(2018.05)
 22. media.daum.net(2015.8)